

숲·물·동굴 품은 여름 피서지 ‘광양’ 주목

시, 물놀이·와인동굴 등 폭염 탈출 콘텐츠 제공 갯벌·암벽등반·화석탐사 등 체험 프로그램 풍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 광양이 숲과 물, 동굴을 아우르는 이색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다. 백운산자연휴양림의 짙은 숲 그늘과 맑은 계곡물, 도심 곳곳의 물놀이장, 한여름에도 서늘함을 유지하는 와인동굴과 에코파크까지, 자연과 체험을 아우른 다채로운 여름 관광 콘텐츠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 따르면 백운산자연휴양림은 광양을 대표하는 ‘숲강스’ 명소다. 울창한 편백과 삼나무 숲이 드리운 그늘, 맑은 계곡물, 숲길을 따라 부는 산바람은 도심의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준다. 숲속의 집과 야영시설, 치유의 숲 프로그램까지 갖춰 자연 속에 머물며 쉬어가는 체류형 휴양지로 사랑받고 있다.

도심 곳곳에 마련된 물놀이장도 여름 피서의 즐거움을 더한다. 백운제테마공원 물

놀이터와 마동근린공원 꿈빛놀이터, 광양읍 서천운동장 야의 물놀이장은 오는 8월 중순까지 운영되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쉼터를 제공한다.

백운산 자락의 백운제테마공원 물놀이터는 숲과 호수를 배경으로 자연 속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어린이풀과 유아풀, 물놀이풀 등을 갖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마동근린공원 꿈빛놀이터는 워터슬라이드와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도심형 물놀이장으로 무료 운영돼 여름철 가족 나들이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서천운동장 야의 물놀이장 역시 넓은 공간과 다양한 물놀이시설, 휴게시설을 갖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색 피서지로는 광양와인동굴이 눈길을 끈다. 폐철도 터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이곳은 한여름에도 17~18도 안팎의 서늘한 온도를 유지해 자연이 만든



광양와인동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동굴 내부에는 와인 전시·판매 공간과 미디어아트, 다양한 체험 콘텐츠가 어우러져 색다른 여행 경험을 선사한다.

광양와인동굴과 인접한 광양에코파크 역



마동근린공원 꿈빛놀이터.

시 폭염을 피해 찾기 좋은 실내 체험 명소다. 이곳에서는 동굴 속에서 갯벌 체험, 암벽등반, 화석 탐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공룡과 화석을 주제로 한 체험 콘텐츠는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

을 자극하며 놀이와 학습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형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최근 여름 관광은 자연 속에서 쉬고, 체험하며, 머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광양은 숲과 계곡,

물놀이장, 동굴 관광지까지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름 콘텐츠를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머물며 휴식과 체험을 누릴 수 있는 여행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순천, 전통 차문화 향유 기반 마련

국가유산청 전승공동체 사업 마무리
5개월간 진행...“전통 제다 기술 보존”



최근 장흥다예원에서 전통차 ‘청태전’ 이론강의가 진행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2026년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5개월간의 대장정을 최근 마무리했다.

순천시가지주최하고 (사) 고려천태국제선차연구보존회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국가무형유산인 ‘제다’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전승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됐다. 올해 사업은 전통 차문화의 저변 및 향유 계층 확대를 목표로, 채움과 나눔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주요 사업으로 소의계층(장애인) 차문화 향유 프로그램, 청년제다학교, 차-울

려 재현행사 및 선포식, 지역 농특산물 연계 차 디지털 개발, 국제차문화대전 등 대외 홍보 부스 운영 등이 이어지며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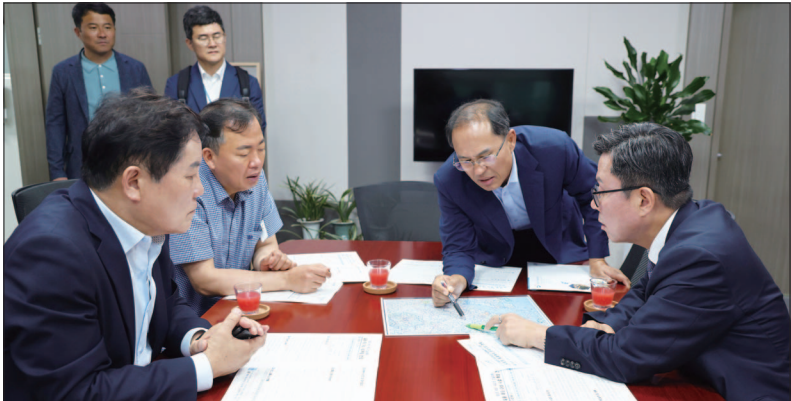
장흥다예원에서는 목표와 순천 등에서 참여한 28명의 참여자들과 ‘청년제다학교 3차 과정’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통 발효 딱치인 ‘청태전’의 역사와 특징에 대한 이론강의를 듣고 직접 제다 실습에 참여하며,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제다의 깊이와 가치를 체험했다.

이어 사업 마지막 날에는 ‘청각장애인차문화 체험교실’이 개최됐다. 평소 다도문화를 접하기 어려웠던 청각장애인들을 초

청에 차의 역사와 종류, 다도 예절 및 시음 등 시간과 미각 중심의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통의 벽으로 인한 내면을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왔다. 평가를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 제다 기술의 보존을 넘어, 청년과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향유계층이 차문화를 함께 나누고 즐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전통무형유산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명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승 기반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사순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수가 (왼쪽 첫번째)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안도걸(오른쪽 첫번째)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국책 사업을 설명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확정과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국회의 적극 지원을 건의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청

사순문 장흥군수, 현안사업 국비 확보 총력

국회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 확정 요청

사순문 장흥군수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공식 국회 방문에 나서 지역 핵심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

3일 장흥군에 따르면 사순문 군수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안도걸·신정훈·문금주·차규근 의원 등을 만나 주요 국책 사업을 설명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확정과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국회 방문에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조사 확정, 장흥 아촌뉴딜 3.0 공모사업 선정,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비 타당성조사 확정은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물류·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군은 교통망 확충을 통해 주민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산업과 관광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흥 아촌뉴딜 3.0 공모사업은 국가어항인 회진항을 중심으로 어촌·어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어촌 경제 활성을 목표로 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지역 농수산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친환경 식품 포장재 등 미래 식품산업을 육성한다.

군은 연구·실증·기업지원 기능을 갖춘 거점을 조성해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로 이어지는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요 국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국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민선 9기의 출범은 장흥의 미래를 위한 국비 확보와 국가사업 유치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60311@

장흥 복합공간 뽀빠웅Zip K-콘텐츠 명소 ‘자리매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문화예술 복합공간 뽀빠웅Zip이 최근 개관 1주년 기념행사인 돌잔치를 성황리에 마치고 지역 문화관광 거점 도약을 다졌다.

이번 행사에는 사순문 장흥군수와 백광철 장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문화예술인, 지역 주민이 참석해 지난 1년의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돌잔치 행사는 아프리카 타악 공연팀 켄베라리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동미자 전거음악단의 뽀빠웅Zip 퍼레이드, 글로벌 장터, 지역 할머니들의 그림과 유물을 선보이는 할머니 서랍장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전국 유일의 실제 교도소를 활용해 조성된 뽀빠웅Zip은 지난해 개관 이후 3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다.

뿐만 아니라 120여편의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며 지역의 새로운 K-콘텐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곳에서는 AR 방탈출 및 연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K-DRAMA in Prison’ 프로그램과 함께 뽀빠웅Zip 방문객 전원에게 인생네컷 합인쿠폰 증정 이벤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지난 1년은 폐쇄와 억압의 공간이었던 옛 교도소가 문화와 사람을 잇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관광, 영상 산업을 연계해 장흥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60311@gwangnam.co.kr

여수 밤 물들인 ‘국동향 한밤의 피크닉’ 개장행사 성황

버블쇼·버스킹·감성 피크닉존 등 첫 주말 2000여명 찾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최근 국동향 수변공원에서 ‘국동향 한밤의 피크닉’ 개장행사를 개최,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에서는 버블쇼와 버스킹 공연 등 문화공연이 펼쳐졌으며, 방문객들은 국동향의 아름다운 바다와 야경을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기며 여름밤의 낭만을 만끽했다.

특히 이틀간 2000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아 국동향 한밤의 피크닉이 여수의 새로운 야간관광 명소로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국동향 한밤의 피크닉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이다. 감성 피크닉존과 먹거리부스, 무료 피크닉

매트 대여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며, 버스킹 공연은 8월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개장행사에 보내주신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계절별 콘텐츠를 선보여 국동향 한밤의 피크닉이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여수의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여수 국동향 한밤의 피크닉 개장행사.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청

곡성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군 부문 1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전남도 문화재단 주관 ‘2026 문화누리카드 발급왕’ 이벤트에서 시·군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도내 시·군 및 읍·면·동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사업 목적 달성과 발급률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곡성군은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주목을 받았다.

곡성군은 이벤트 기간에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을 7.69% 끌어올리며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영암군(7.52%), 순천시(4.61%), 담양군(4.4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성과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상자에게 문화누리카드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 안내 등 현장 중심의 발급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